

권오신의 현조(賢祖)실록 산책

기획특집 1



김 권오신 (대중회 부회장, 칼럼니스트)

-조선 후기는 음모와 배신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고종 21년, 400년이 훨씬 넘는 일을 깨낸 것은 죽림 권산해(竹林 權山海) 처럼 나라를 지킬 충절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다. 고종이 죽림공(竹林公)에게 내린 이조판서(吏曹判書) 가증(加贈)은 친일, 친러로 갈리고 부정부패로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가는 의정부 대신들에게 죽림선조의 충절(忠節)정신을 본보기로 삼으려한 특별한 조치였다.-

조선 후기 26대 임금 고종(高宗)은 대한 제국(大韓帝國) 선포 13년을 앞둔 1884년(고종 21년) 봄 사육신(死六臣)의 단종복위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영주 순흥에서 위리안치(圍離安治, 의외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배소 주변에 가시울타리를 치고 죄인을 격리시킨 곳)된 금성대군(錦城大君)과 주민들이 무참하게 살육되던 날 예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죽림(竹林) 권산해(權山海)공에게 이조판서로 추증하고 충민(忠愍)이란 시호(諡號) 성현이 죽은 뒤 생전의 흔적과 공적을 칭송, 임금이 내리는 칭호를 내렸다.

당시 고종이 선왕(先王)대에 이미 증직이 된 죽림공에게 이조판서로의 추가 가증(加贈)은 일본과 러시아 세력에 빌붙어 자리를 탐하고 매관매직으로 재물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된 부패관료들에게 "단종의 이모부로 성품이 강직하고 의(義)와 효(孝)를 중히 여긴 당대의 문신"상을 본보기로 삼으려 하였다.

정일전쟁(1894)을 앞둔 조선의 의정부(議政府)는 친러파가 득세한 가운데 친일 세력을 넓히기 위해 혈안이 일본(日本)이 친러 세력의 우두머리로 지목했던 민비(閔妃) 시해사건을 일으키기 10년 전이었다.

친일 친러 세력다름에 빠진 당시 조선 조정은 고종 임금의 왕권이 서지 않았는가하면 자기 세력의 부패 행위는 눈감아주는 시대였다. 백골정포(白骨精布, 조선말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복과 주민장부에 올려놓고 군포와 세금을 물리던 일)라는 말이 가장 유행했던 시기였다.

고종 임금은 당시 정(貞)부인에게 충민공(竹林)에게 내린 품계를 두 번 내릴 수 없다 해서 판서보다 한 단계가 더 높은 정경부인(貞敬夫人, 花山府院君 權專의 따님) 교지를 내렸다.

충민공(竹林 諱 山海)은 태종 3년 계미년(1403) 예천(醴泉) 용궁(龍宮) 대죽리(大竹里)에서 성균관 대사성(大司成)과 북백(北伯, 함경도관찰사)의 자리를 마다하고 고려의 수절신으로 남은 송고공(松

고종과 충민공 권산해

高宗 忠愍公(竹林) 權山海



예천 노봉서원

專公, 諱 軫)의 손자로, 경력공(經歷公, 諱 寬)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고조(高祖)와 증조(曾祖父)는 고려 충신 왕(忠宣王) 때 문하시중(門下侍中: 諱 用一)공과 조선 세종 때 좌의정으로 증직이 된 문정공(文靖公: 諱 希正)이었다.

충민공(竹林 權山海)은 타고난 인품과 몸가짐이 효도와 우애가 지극하고 학문의 성취도가 빨랐다. 세종 때 좌의정을 지낸 증조부(從祖父) 문경공(文景公 諱 軫)에게서 수학할 때에 '백이전(伯夷傳)을 세 번을 반복해서 읽고 크게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伯夷)이라야 만세에 강상(綱常)을 유지해 줄 수 있다"고 하니 문경공이 웃으면서 기특하게 생각하시었다.

성장할수록 정의를 실천하고 남의 훌륭한 행동을 보면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남의 나쁜 일을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멀리했으며 항상 곧은 마음으로 모두를 수용(受用)하는 것 같았으나 정의와 시비를 가려야 하는 곳에서는 엄격해서 불의에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문종(文宗)과 동서(同禧)기간이 되어서도 충장공(忠莊公) 권자신(權自愼)과 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問), 취금헌(醉琴軒) 박광년(朴光年)과 특히 친하게 지내셨으며 벼슬길을 멀리하고 절의(節義)를 가슴에 새겼던 시기는 29살 이후로 추정된다. 당시 학문적(學問的) 명성이 영남을 넘어 한양에까지 퍼졌다고 전해진다.

관례(冠禮)에 앞서 부정공파(副正公派)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권전(權專)의 사위가 되었다.

세종 13년 신해년(1431) 화산부원군의 셋째 딸이 세자빈(世子嬪: 후일 현덕왕후(顯德王后)으로 책봉되니 이로부터 왕세자인 문종의 손윗동생이 됐다.

그로부터 죽림 선조는 일제의 과거에 나가는 것을 폐하고 학문을 닦는데 더 열중하였다. 세종 22년 경신년(1440)에는 38세로서

녹사(錄事)와 주부(主簿) 벼슬이 제수(除授)되었으나 모두 응하지 아니하였다.

문종이 왕위(1450)에 오르고 입신년(1452)에 황보인(皇甫仁)과 김중서(金宗瑞) 및 집현전 학사(集賢殿學士) 박광년(朴光年) 성삼문(成三問) 등이 유조(遺詔)를 받아 이질(姦賊)인 단종(端宗)을 받들어 보좌하게 될 때에도 출사(出仕)를 아히고 재야(在野)에 있으시다 단종 재위 2년이 되던 갑술년(1454)에 가서야 중부시 첨정(宗簿寺添正)으로 제수됐다.

단종을 처한 위기를 직접보고 느꼈던 공은 마침내 사직(辭職)하지 아니하고 교지를 받지 않고 고향 예천(醴泉) 대죽리로 내려오셔서 두문불출(杜門不出)로 복침을 읍(伏枕)하던 세월을 보냈다.

세조 2년(1452) 단종(端宗) 복위운동이 탄로나 사육신(死六臣)과 금성대군(錦城大君)에게 환관이 다치자 "하늘이 돌지 않는구나. 내 홀로 살아서 무엇을 하리오. 죽어서 선왕(先王)께 보은(報恩)이나 하겠다."는 절명시(絶命詩)와 같은 긴 탄음 남기고는 단종 임금이 내리신 조복(朝服)으로 갈아입고 누대에 올라 선왕에게 올리는 북향 사배(四拜)를 끝으로 지붕에서 뛰어내

려 생을 마감 하였다. 이때가 54세였다. 세조가 보낸 차사(差使)가 예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숨을 거둔 뒤였다. 정경부인(貞敬夫人)이 서제(書齋)에 두었던 서지(書誌, 책이나 문서, 사적을 책처럼 기록해 둔 것)와 서간문(書簡文)을 불살라버려서 관직이 삭탈되는 것으로 화(禍)를 과했다.

죽림공의 아우이신 사정공(司正公, 諱 壽海)은 고에(孤哀, 아버지를 잃은 자식)와 함께 공의 시신을 거두어 축성(竺城, 용궁면과 지보면의 옛 지명) 엄송산 산허리 유좌(西坐,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앉은 자리)에 묘를 쓰는 등 초종(初終, 장례의식)을 끝내는 즉시 네 짝(절손)을 입고 경상도(慶尙道) 연일(延日) 땅 대작산(大작山)으로 향하는 유배 길에 올랐다.

사정(司正)공 또한 해배(解配)가 되고서도 100년 금고형에 처해 경상도 연일 땅을 벗어날 수 없었고 후손들의 과거길이 막혔다.

죽림, 사정(司正) 후손들은 물론 죽림공에게 글을 가르친 세종 때의 좌의정 문경공(文景公 諱 軫)과 형제분들의 가손마저 정든 땅에서 살지 못하고 김천 영양 강원도 원주 고성 등에 흩어져 생명을 건사하기에 급급했다.

충민공과 정경부인(貞敬夫人)은 4남(哲祖, 哲宗, 哲命, 哲孫)과 현감공(縣監公) 정난원(鄭南元)에게 출가한 딸을 두었다.

묘소는 예천 용궁리 엄송산 절동 선영에 묘향(정몽을 중심으로 15도 쯤 기울어진 자리)으로 썼다.

충민공(竹林 諱 山海) 묘소 아래쪽에 특별한 사연을 간직한 무덤이 주인을 지키고 있다. 죽림공이 평소에 가까이 했었던 버루붓 등 문방사우(文房四友)와 불에 타다 남은 서적들을 사후(死後)에 묻어둔 곳이다.

조선(祖先)들이 즐겨 썼던 것은 어느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못했던 죽림공 후손들의 마음이 잘 간직된 서책(書冊) 무덤이기도 하다.

죽림 선조(先祖)의 묘소 앞에 세워진 비석은 3개다.

그중 가장 오래된 비석이 단종이 노산군(龜山君)이었을 즈음 세워진 화강암 비석이다. 비석 전면 글이 노산군으로 음각됐다. 이 고비(古碑)는 먼 세월을 건너 단종이 왕호를 회복하자 후손들에 의해 다시 새 비(碑)가 세워진 후 허리가 잘려 땅속에 묻혀 있다가 귀중한 문화재(文化財)로 대접받으면서 다시 살아났다.

조선이 죽림공에게 증직(贈職)을 내린 교지(敕旨)를 엄송산 무덤 앞에서 분황고유(焚黃告由)할 즈음 산허리에 오색무지개가 뻗혀 한동안 사라지 않은 기이한 이적(異蹟)이 일어났다고 기록 됐다.龍宮邑誌

이날은 비가 뿌리지 않았던 맑은 날이 죽림공의 기운이 엄송산에 내려왔다.

명종(明宗)이 재위했던 1566년(丙辰)에 금고형(禁錮刑)이 해제되면서 죽림공의 손자(諱 經)는 73살의 나이로, 조카(諱 應履)와 함께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셨으며 사정(司正)공 집에선 현손(諱 德麟)이 대과급제로 출사를 하는 등 다시 관료가 열리고 가손(家孫)이 크게 일기 시작했다.

부산중친회 등산회 정기총회



부산중친회 산하 등산회(회장 權寧貞)는 지난 1월 26일(토) 13시 초음동 '사계'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는 추운 날씨에도 20여명의 회원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영인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친들의 건강 증진과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만든 등산회가 어느새 10년이 지났다고 회고하고 지난 2년간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새해에는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회원 배가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단골로 참석하는 회원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영호 중친회장은 격려사에서 개인 업무로 자주 참석이 못한 데 대한 양해를 구하고, 건강과 친목을 다지는 등산회의 높은 뜻을 살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길상 명예회장의 한국성씨연합회 총재 취임을 소개하여 축하 박수가 쏟아졌다. 아울러 등산회 창립을 주도한 길상 명예회장과 중원 자문위원, 그리고 영훈 산행대장도 등산회의 지나온 과정을 회고하며 앞으로 좀 더 활력 있는 단체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이러진 총회는 기존 집행부를 유임토록 만장일치로 결정한 뒤 오찬과 산행 뒤풀이로 이어졌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시작이구장을 출발하여 어린이대공원으로 이어지는 백양산 둘레를 세 시간 가까이 걸으며 건강 증진과 더불어 족친끼리 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총회는 영인 회장이 기념품(방한 장갑)을 마련하고, 여러 회원이 찬조금과 간식을 협찬하여 정겹고 따사로운 가운데 막을 내렸다. <부산 사무국장 권재영>

안동능곡회 신년맞이 웃놀이 한마당



안동능곡회(회장 권기호)가 주최하는 2019년 기해년 '신년 맞이 능곡회 웃놀이 한마당' 대회가 2월 16일 오후 4시부터 안동시 관광단지 리첼호텔 2층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하였다. 능곡회 전 회원 가족과 능우회 일부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에 걸쳐서 웃놀이 등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는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광택, 권남희 안동시의회 의원,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 권영길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장, 권기섭 남안동농협조합장, 권오길 전 안동농협 이사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권순의 사무국장의 사회로 능곡회 회장단의 합동사배에 이어 국가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명배, 상음례를 하였다. 권기호 능곡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황금돼지해로 돈 많이 벌고 건강하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권순근 능우회장은 축사에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웃놀이를 재미있게 놀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능우회위원 권혁록 문화관광해설사는 안동태사묘에 관하여 유래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웃놀이는 청(靑), 홍(紅) 두 팀으로 나누어 한 조(조)에 2명씩 모두 44개 조가 출전, 오후 8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웃놀이를 한 결과 청팀이 우승을 차지하여 푸짐한 선물을 받았다. 웃놀이를 하는 가운데 권승 지역가수가 자신의 노래 '월영고'와 '안동역에서' 등 많은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한층 더 북돋우기도 했다.

주최 측은 회원들에게 선물 1점을 준비, 교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물을 꼭 지참하도록 하여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화가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답을 나누며 뷔페로 저녁 식사를 하는 가운데 서로의 끈끈한 정과 유대를 쌓아갔다. <보도부장 권영건>

7명의 경력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청주의 법률섬김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길잡이(靑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공증인간 청주로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권태호

- 안동권시 추밀공파 33세손
- 안동권시 대종원 부총재(현)
- 안동권시 충청북도 중친회장(현)
- 충원지검장/대전고검차장검사
- 청주지검/인천지검 차장검사
- 서울동부/부산/광주지검 부장검사
-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 검사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 대검찰청 과장, 법무부 검사
- 안산(초대)/충주지검장

구성원 변호사	
대표변호사 유재풍 변호사 박종일	
대표변호사 김준희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권중원(제천)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산남동657) 엔젤변호사빌딩 7F(신법원 정문앞 건너기)
TEL. 043-290-4000(대표전화) FAX.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형사/행정/가사/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 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공증/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가 나 기 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